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UNITED STATES OF JAPAN

가제 : 일본합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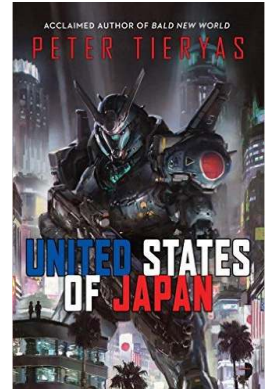
저자 : Peter Tieryas

출판사: Angry Robot

발행일: 2016년 3월 1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소설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아닌 일본이 승리했다면? ‘일본 합중국’의 모습을 담은 SF 소설

2차 대전에서 연합군이 아닌, 일본이 승리했다면 세계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작가가 공상과학 소설의 대가 필립 K. 딕(Philip K. Dick)을 위한 오마주라고 밝힌 이 소설은 바로 그 흥미로운 가정에서 시작된다.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합중국’이 거머쥔 세계의 패권, 억압과 제약, 그리고 자유를 꿈꾸는 세력은 정반대의 세상을 그린 게임을 개발하고, 국가는 체제를 거스르는 이들을 힘으로 짓누르려 한다. 역사적인 요소와 게임, 로봇 등 공상과학의 요소를 접목시킨 이야기가 전개된다.

1931년부터 중국과 전쟁을 시작한 일본은 14년간 이어진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다. 자유로운 세상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던 미군은 전제주의를 내건 일본군에 결국 투항했다. 일본 정부는 종전 직후 전쟁 기간에 포로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일본군의 고문과 잔인한 처사를 비롯해 일본군이 점령했던 지역의 평범한 시민들에게 저지른 온갖 만행을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그러나 4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전쟁의 역사는 거의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쓰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이 일으킨 전쟁과 그 이후 저지를 일들이 그 모든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받아들였고, 오히려 세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으며 모범적인 결단이라고 추앙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일본 천황은 신격화되어 일본합중국의 모든 국민은 우상처럼 천황을 받들었다. 자유는 없었다. 체제가 조금이라도 뒤흔들릴 것을 크게 우려한 합중국 정부는 국가의 일을 의심하거나 반발하려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엿보이는 사람은 모조리 잡아들였다. 거대한 빌딩 크기만한 로봇이 도시 곳곳을 누비며 사람들을 감시하고, 모든 국민은 ‘포트칼’이라는 휴대전화나 노트북 대신 작은 컴퓨터를 휴대해야 하고, 언제 어디서든 비밀경찰이 불시에 찾아오거나 요청하면 순순히 조사에 응해야 했다.

자유를 잃은 세상과 자유를 꿈꾸는 세력, 게임 'USA'를 파헤치는 검열관과 비밀경찰, 뜻밖의 비밀

그러나 수십 년이 흘러도 자유를 기억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다. 정부의 폭압을 피해 자유주의를 되찾으려 몰래 활동하는 세력들 중에는 '조지 워싱턴'이라는 단체가 있었다. 이들은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하던 중 '미합중국(USA)'라는 이름의 비디오 게임을 만들어낸다. 2차 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었다는 가정에서 시작되는 이 게임은 그 이후의 세상을 그렸다. USA 게임은 국가 검열관인 베니코 이시무라의 레이더망에 걸리고 만다. 전후 집단수용소에서 풀려난 두 포로의 외아들인 베니코는 비밀경찰인 아키코 츠키노와 한 팀이 되어 이 불손한 게임을 만든 세력을 찾아내고 모든 활동을 중단시키라는 지시를 받는다. 내키지 않는 파트너와 함께 '조지 워싱턴'을 파헤치기 시작한 베니코는 게임이 만들어진 배경을 따라가던 중,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한다. 일본 정부가 숨겨온 비밀과 위험한 역사, 거짓말이 하나씩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야기가 흘러갈수록, 국가를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마다하지 않는 냉혈한이자 교활한 인물로 그려지는 베니코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말 한 마디, 글자 하나를 쓸 때도 두 번 세 번씩 확인하는 그의 강박적인 습관은 국가 체제를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반발하는 기미만 내비쳐도 언제 누구에게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일본 합중국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뿌리내린 습관일 뿐이다. 서른아홉, 아직 젊은 나이지만 안전하게 목숨을 연명하는 것 외에 아무런 야망도 없는 그가 왜 그토록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놀라운 비밀이 그가 조사하는 세력의 역사 속에 담겨 있다. 베니코와 정반대로 국가에 대한 철저한 충성심과 애국심으로 모든 면에서 자신감에 넘치는 아키코라는 캐릭터는 베니코가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스릴러와 공상과학, 역사 소설이 조합된 독특한 이야기가 상상력을 자극하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피터 티어야스(Peter Tieryas)는 『Bald New World』로 폴리오 상(Folio Prize) 후보로 선정되었다. 해당 소설은 2014년 버즈피드(Buzzfeed)가 선정한 가장 기대되는 도서 15권, 2014년 여름 퍼블리셔 위클리(Publisher Weekly) 선정 우수도서 중 하나로 선정됐다. 「Electric Literature」, 「Evergreen Review」, 「Gargoyle」, 「Hobart」, 「Indiana Review」 등 다양한 간행물에 글을 기고해 왔으며, LucasArts에서 작가로 일했다. LucasFilm에서는 게임 부서에서 근무했다.

제목 : THE GLORIOUS HERESIES

가제 : 영예로운 이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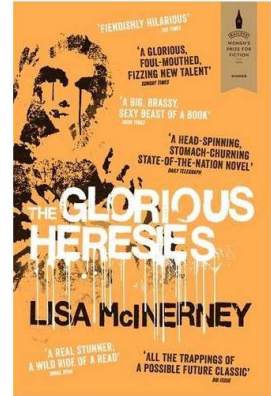
저자 : Lisa McNerney

출판사: John Murray

발행일: 2015년 12월 31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소설



2016년 영국 ‘베일리스 여성소설가상’ 우승작, 우발적인 살인으로 영키기 시작한 다섯명의 군상들

집 안에 쳐들어온 낯선 청년을 돌로 내리친 여성, 죽일 생각도 없었고 죽이고 싶지도 않았지만 침입자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고, 이 갑작스러운 살인은 네 명의 인물을 같은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처럼 한 곳으로 끌어들이는다. 추락한 경제로 빈곤에 찌든 아일랜드의 작은 도시 코크, 그 곳에서도 가장 침울한 어느 거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과 그래도 어딘가에 구원이 있다는 희망으로 그것을 찾으려 발버둥치는 모습들을 그린 이 데뷔 소설은 영국에서 가장 명망 있는 소설상으로 꼽히는 ‘베일리스 여성소설가상(Baileys Women’s Prize for Fiction)’과 우수 데뷔소설에 수여되는 ‘데스몬드 엘리엇 상(Desmond Elliott Prize)’의 올해 우승 작으로 선정됐다. 아일랜드 도서상 최우수 신인작가상(Best Newcomer at the Irish Book Awards) 결승 후보, 인터내셔널 딜런 토머스 상(International Dylan Thomas Prize) 수상 후보에도 이름을 올리고 「아이리쉬 타임스(The Irish Times)」 ‘3월의 도서’로도 선정되며 큰 화제를 낳고 있는 소설이다.

모린 펠란은 갑자기 집에 쳐들어온 키 큰 남자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사람을 죽여본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방어하던 모린은 돌로 그의 머리를 내리 찍어버렸다. 팔을 휘두르면서도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돌을 쥔 손에 힘을 최대한 실어서 돌에 내리 쳤는데, 바닥에 쓰러진 남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모린이 겨우 눈을 뜨고 보니 남자의 시커먼 점퍼는 시뻘건 피로 물들고 뒤통수는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열아홉,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는 바람에 영국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모린은 40년이 지나 겨우 고향 아일랜드로 돌아왔다. 어쩔 수 없이 버리고 떠난 아들 지미와도 다시 만났다. 신의 뜻을 거역하고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진 여자들이 모린 혼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린처럼 몰래 낳아야만 했던 아이들도 훌륭하게 자라서 회계사며 교사가 되는 일도 많다지만, 모린의 아들 지미는 그런 축에 들기는커녕 코크에서 가장 흉악하기로 소문난 갱스터가 되어 있었다. 그런 아들은 너무 낯선 존재였지만,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이고 만 모린을 누구보다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했다. 모린은 지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지미는 오랜 친구이자 일명 ‘해결사’로 불리는 토니를 고용하여 사태를 수습하러 나선다. 그러나 이 일은 지미의 바람처럼 깔끔하게 끝나지 않았다.

술과 마약, 종교에 찌든 아일랜드 작은 도시, 죄와 위선을 딛고 구원을 찾으려는 이들의 이야기

아내가 죽고 술과 마약에 절어 사는 토니에게는 무려 다섯 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토니는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하면서 살았지만 형편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럴수록 마약의 유혹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알코올과 약 기운에 취하면 마음과 달리 아이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아버지의 잔인한 폭력과 찢어지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토니의 아들, 라이언은 열다섯 살 어린 나이에 이미 마약상으로 일하기 시작한다. 모린의 손에 황망하게 죽은 침입자, 로비 오도노반 역시 마약중독자였는데, 로비에게는 돈이 필요할 때면 매춘부로 일하는 여자친구 조지가 있었다. 조지는 약이 떨어지면 모린과 같은 건물에 사는 타라를 찾아갔다. 매춘부들을 남자들과 연결시켜주는 ‘마담’ 타라에게 조지는 일종의 직원이었고, 타라는 약이 필요한 조지에게 얼마 전 알게 된 어린 소년 마약상 라이언을 소개해주었다. 이렇듯 서로 거미줄처럼 엉킨 관계가, 로비 오도노반의 죽음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다. 지미의 연락을 받고 토니가 모린의 살인을 처리하는 일에 가담하고, 조지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로비를 찾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관계가 엉키기 시작한 것이다. 지미는 로비의 시체를 혼자서는 처리할 수가 없어서 토니를 불렀지만 범인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토니는 즉각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지미는 어머니와 같은 건물에 사는 타라와 그녀를 만나러 자주 드나드는 죽은 남자의 여자친구 조지를 통해 비밀이 발각될 수 있다는 걱정에 한껏 초조해진다. 서로를 향한 팽팽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뜻밖의 사건까지 더해진다. 되는 대로 살아온 조지는 시간이 날 때마다 괴상한 종교의식에 참여하며 자신의 문란한 생활과 죄를 씻으려 하는데, 이 가식적인 노력이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이다. 여기에 혈기왕성한 라이언까지 사건에 개입하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폭탄 같은 존재가 되어 모두를 불안하게 만든다.

술, 마약, 종교에 찌든 사회에서 구원의 길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몸부림을 신랄한 위트와 감동을 담아서 그려낸 특별한 소설이다. ‘베일리스 여성소설가상(Baileys Women’s Prize for Fiction)’의 심사위원에게 “뛰어난 독창성과 연민이 담긴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데스몬드 엘리엇 상(Desmond Elliott Prize)’ 심사위원은 작가에게 “강렬하고 복합적인 노동계층을 통해 독자의 감정을 섬세하게 건드리는” 능력이 있다고 찬사를 보냈다.

<저자 소개>

리사 맥이너니(Lisa McInerney)는 신인 소설가로 BBC 라디오 4와 「Granta」, 「the Stinging Fly」 등에 단편소설이 소개되기도 했다. 현재 아일랜드 골웨이에 살면서 글을 쓰고 있다.

제목 : THE SLAVE

가제 : 노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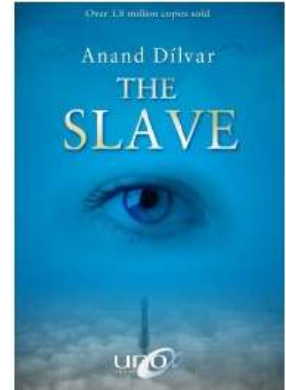
저자 : Anand Dilvar

출판사: Palibrio

발행일: 2014년 10월 21일

분량 : 78 페이지

장르 : 소설



멕시코에서 180만부가 판매된 소설, 말을 할 수 없게 된 순간 마침내 시작된 자신과의 진짜 대화

한 순간의 무모한 선택으로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남자는 정신만 멀쩡하게 살아 있을 뿐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가족도, 친구도 없이 오로지 자신만 덩그러니 남았음을 인지한 순간, 그는 내면과 대화를 시작한다. 그제야 비로소 자아를 실현하기 시작한 남자는 새로운 의식의 상태를 경험하고, 가장 깊은 곳에서 늘 함께해온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한다. 작가의 고향인 멕시코에서 출간되어 현재까지 180만 부 넘게 판매된 이 소설은 인간의 영적인 세계를 탐구하며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 『연금술사』에 버금가는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어와 독일어로 번역되어 현재 미국,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식물인간 상태로 의식을 차리기 전, 남자는 로라와 또 말싸움을 했다. 걸핏하면 술을 퍼붓는 그에게 로라는 그만 좀 마시라고 타박을 했는데, 파티가 있었던 그 날 하필 남자는 친구 에드워드가 건넨 약까지 손에 쥐고 있었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도피할 곳을 찾아 헤매던 남자에게는 술이 유일한 낙이었는데, 에드워드는 효과가 기가 막히는 약이 있다면서 남자에게 알약 두 개를 건넨 것이다. 로라는 술을 끊임없이 마셔대는 남자에게 그만 살고 싶은 거냐고 따져 물었지만, 남자는 그냥 술에 기대어 현실을 다 잊고 싶을 뿐이었다. 결국 옥신각신 격한 말이 오간 끝에, 남자는 로라가 보는 앞에서 새파란 알약 두 개를 꿀꺽 삼키고 말했다. 그게 병실 침대에 누워있기 전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겨우 다시 눈을 떴을 때 남자는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다. 가장 먼저 눈 앞에 나타난 강렬한 불빛에 눈이 멀 것만 같아 팔을 들어 막으려고 했는데, 팔이 움직이지 않은 것이다. 팔뿐만이 아니었다. 몸 전체가 마비된 상태였고, 태어나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얼얼한 통증이 온 몸을 휘감았다. 고향치고 싶었지만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에 타는 듯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고, 귀에서는 끔찍한 소음이 울려댔다. 극심한 고통과 충격에 다시 정신을 잃은 남자는 다시 의식을 차렸다. 처음 눈을 떴을 때보다는 통증이 다소 약해진 것 같았고,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다. 컵속을 울리던 그 소음은 바로 자신이 안간힘을 다해 숨을 쉬는 소리였다. 겨우 힘을 짜내어 한숨, 한숨 몰아 쉬는 소리가 머리 전체를 울렸다. 아주 조금 이 상태에 익숙해

지고 나니, 이렇게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왜 가족들은 한 명도 곁에 없는지, 몸의 고통보다 머릿속을 채운 마음의 고통이 남자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다.

용서와 자유, 진정한 자아의 발견과 성장의 과정을 단순하고 간결한 문제로 전하는 영적 소설

뜬어말리던 로라의 간곡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술을 들이붓던 시간들, 마지막에 원지도 모르는 약을 입에 털어 넣은 바보 같은 모습, 남자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이 빚은 이 엄청난 결과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 끝없이 추락하는 무기력함과 죄책감, 분노, 공포, 그리고 어떠한 감정도 표현할 수 없다는 현실에 정신이 나가버릴 지경이었다. 남자는 머릿속이 녹초가 되어 잠이 들려고 할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 다시 깨어나지 않게 해 달라고, 이대로 죽게 해달라고. 그러나 또 다시 잠을 깨는 일이 반복되고, 남자는 꿈쩍도 못하는 몸 속에서 격렬히 분노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남자에게 말을 걸었다. “그냥 익숙해지는 게 좋을걸. 한동안은 그 상태로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시선이 닿는 곳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남자는 얼마 전 로라와 했던 대화를 떠올렸다. 로라는 영적인 가이드에 관한 이야기를 수시로 하곤 했는데, 한 번은 남자에게 깊이 명상하면 마음 속에 존재하는 그 영혼의 안내자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물론 그때 남자는 정신 나간 소리라고 로라에게 핀잔을 줬다. 그런데 그 누구와도 대화를 할 수 없게 된 순간, 로라가 말한 내면의 안내자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당황하는 남자에게 싫으면 바로 가겠다고 이야기하며, 인생의 여러 문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결국 자유의지도 없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노예’ 상태로 만들었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그렇게 하나씩, 남자는 내면의 자신에게서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리고 서서히, 성공이나 사회적인 인정, 부와 영광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즐거움과 사랑, 평화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다는 삶의 진실을 깨우친다.

약과 알코올, 물질로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현대인들에게 용서와 자유, 진정한 자아의 발견과 성장의 가능성을 단순하고 간결한 문제로 제시하는 특별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아난드 딜바(Anand Dilvar)는 게슈탈트 심리치료사로, 멕시코의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에 자주 출연하며 ‘의식의 혁명(Revolution of Consciousness)’이라 칭한 자아 탐구 방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 고대 철학과 현대 철학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18개국을 돌며 영적 지도자와 개인의 내적 발전을 연구했다.

제목 : THE MOST DANGEROUS PLACE ON EARTH

가제 :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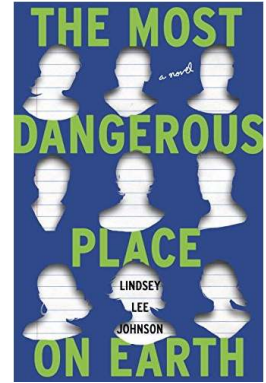
저자 : Lindsey Lee Johnson

출판사: Random House

발행일: 2017년 1월 10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소설



잔인함, 교활함, 악행이 농축된 세계, 미국 고등학교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데뷔 소설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기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해마다 선정되는 캘리포니아주 밀 밸리는 그 명성에 걸맞게 목가적인 풍경과 부유층이 들어찬 고급 주택들로 늘 여유롭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마을이다. 밀 밸리에 사는 아이들이 다니는 마린 카운티 고등학교에 새로 부임한 교사 몰리 니콜은 학생들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관심을 쏟는 것으로 천직이라 여겨온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 하리라 다짐한다. 몰리에게는 모든 학생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부족한 것 없이 자라면서 이기적이고 냉담한 태도에 익숙한 아이들이 그 불필요한 껍질을 깨고 나오도록 이끄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굳은 신념이 있었다. 그러나 몰리가 마주한 건 생각보다 단단한 껍질로 제 몸을 감싼 아이들이었다. 오로지 좋은 성적을 받고 명문 대학에 가려고 기를 쓰는 아이들, 그와 정반대로 가장 기본적인 학업 수준도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 마약 중독과 문란한 생활에 젖어 학교만 아니면 어디든 다 좋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 작은 학교 안에서 가장 돋보이는 존재가 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건 다 하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몰리는 어쩌다 아이들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의아해하면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몇몇 아이들에게 평생 씻어내지 못할 기억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3년 전에 벌어진 자살사건이 남긴 무거운 흔적이었다.

트리스탄은 학년이 바뀔 때마다 같은 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어딜 가나 놀림감이 되는 아이였다. 트리스탄 자신도 그런 악몽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어떻게든 이해 받으려 애쓰고 자신이 속할 곳을 찾으려 발버둥을 쳤지만, 그럴수록 아이들의 가혹한 놀림은 점점 더 심해질 뿐이었다. 그런 트리스탄에게도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나 따돌림당하는 처지에 칼리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트리스탄이 칼리에 대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쓴 메모가 페이스북에 올라오면서, 모든 비극이 시작됐다. 먹이를 찾던 하이에나들처럼 아이들은 일제히 트리스탄의 애뜻한 감정을 조롱했고,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진 그 놀림과 비난, 협박에 가까운 괴롭힘은 몇 주나 이어졌다. 결국 참다 못한 트리스탄은 어디에서도 비상구를 찾지 못하고, 자전거 페달에 온 힘을 실은 채 금문교 난간으로 돌진하고 말았다. 그로부터 3년 뒤, 트리스탄을 죽음으로 몰고 간 아이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해 이제 대학에 갈 준비를 시작했다. 냉담하고 남일에는 무관심한 이기적인 태도들은 여전했지만, 트리스탄의 자살은 모두의 머릿속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에 몸부림치는 청소년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특권층 집안에서 태어나 부족할 것 없이 자란 아이들. 다들 멀쩡한 척 했지만, 뜻하지 않게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고 말았다는 깊은 자책감은 3년이 흐른 뒤 제각기 다른 형태로 이 아이들의 삶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성적으로는 따라올 사람이 없는 예비게일은 속이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을 잘못된 곳에서 해소하고 있었다. 대학 입학시험 준비를 하면서 만난 교사와, 파국으로 갈 것이 뻔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이다. 반드시 명문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부모님의 압력에 시달려온 데이브는 성적이 도통 오르지 않는 와중에 과외 선생님까지 갑자기 사라져버리자, 가지 말아야 할 길로 접어들고 만다. 머리는 좋은데 놀 궁리만 하느라 대학 진학에는 관심 없는 닉에게 대리시험을 보게 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러나 이 맹랑한 사기행각은 엘리자베스에게 들통난다. 미모는 출중하지만 친구 하나 없는 엘리자베스는 비밀을 지켜준다는 약속을 하고 닉에게서 뜯어낸 돈으로 파티를 열어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을 만들 계획을 세운다. 물리는 이들과 함께 얼굴은 어린아이처럼 맑지만 소년원에 다녀올 만큼 험난한 삶을 살다가 학교로 돌아와 새 인생을 시작하려는 데이먼과 3년 전 트리스탄의 마지막 순간을 직접 목격한 라이언, 그리고 트리스탄의 죽음이 자신의 탓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칼리의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겉으로 드러난 생활은 더 없이 화려하고 풍족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누구에게도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공허한 아이들, 그 공허함에서 비롯된 끔찍한 사건이 다시 아이들의 내면을 잠식하는 비극적인 악순환과 이들의 불행한 내면을 들여다보려는 한 교사를 통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적막하고 외로운 몸부림을 생생하게 그린 소설이다.

<저자 소개>

린지 리 존슨(Lindsey Lee Johnson)은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글쓰기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사설 교육센터에서 과외교사, 멘토로도 활동 중이다.

NON-FICTION

제목 : OVERCOMING SOCIAL ANXIETY AND SHYNESS

가제 : 사회적 불안감과 수줍음 극복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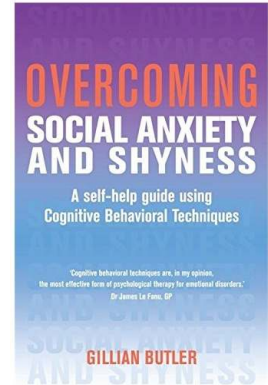
저자 : Gillian Butler

출판사: Robinson

발행일: 2016년 (제 2판)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건강



일상생활을 제약하는 극심한 불안감과 수줍음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인지행동치료 전략

살다 보면 누구나 자신이 바보 같다고 느끼거나 쥐 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만큼 너무 창피한 기분이 들 때가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기분이 자신감을 갉아먹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된다면 문제가 된다. 다행히 이런 극심한 사회적 불안감과 수줍음이 서서히 내면을 잠식하더라도 인지행동치료를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2007년 초판이 발행된 후 8만권 넘게 판매된 책을 새롭게 업데이트하고 수정한 이 두 번째 판에서, 저자는 사람마다 제각각 그 정도가 다양한 사회적 불안감을 이겨내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이 책을 비롯해 인지행동치료를 통해 장기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긴 <Overcoming> 시리즈는 심리학 분야의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잡아 꾸준히 개정과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 시리즈 가운데 15권은 영국 보건부가 의사, 간호사, 의료계와 정신의학분야 전문가가 환자에게 추천할 만한 책을 선정하는 ‘독서 처방 프로그램(Books on Prescription programme)’에 포함됐다.

현대사회에서 불안감은 특히 젊은 층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영국에서는 최근 실시된 조사에서 청년층 여섯 명 중 한 명이 불안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안감을 그대로 방치하면 ‘사회불안장애(SAD)’로 발전할 수 있고, 실제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에서는 사회불안장애 환자가 1,5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저자는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크게 염려하는 수준부터 강박장애까지 광범위한 불안의 문제를 스스로 해소할 수 있도록 인지행동치료의 원리를 활용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행동과 사고의 패턴을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지행동장애의 기본적인 방식으로, 생각이 감정과 행동의 원인이라고 보는 원칙에 뿌리를 둔다. 따라서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알아먹는 생각이 변하면 기분이 훨씬 나아질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인지행동치료의 실용적인 접근방식은 심리적인 문제는 물론 신체 건강에 발생한 장기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저자는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독자가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진단 설문지 등 다양한 평가 도구와 함께 폭넓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정서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목차>

1부. 사회적 불안감

1. 사회적 불안감이란 무엇인가?
2. 수줍음에 대하여
3. 사회적 불안감이 생각에 끼치는 영향
4. 사회적 불안감의 원인
5. 사회적인 불안에 시달릴 때 발생하는 문제

2부. 사회적 불안감 극복하기

6. 출발점
7. 자신에게 맞춰진 화살 돌리기
8. 생각의 패턴을 바꾸자
9. 다르게 해보자
10. 자신감 쌓기
11. 요약: 개별 치료 전략

3부. 추가 정보

12.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
13. 따돌림의 영향
14. 휴식과 마음챙김

<저자 소개>

길리언 버틀러(Gillian Butler)는 영국 심리학회 소속 의사이자 인지치료학회 창립회원이다. 영국 국민의료보험(NHS)과 옥스포드 인지치료센터에 근무하다 은퇴했다.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10년간 인지행동 치료가 사회적 공포증과 범 불안장애를 해소하는 효과에 관한 임상연구를 실시했다.

제목 : HOW TO BE SUCCESSFUL BY BEING YOUR SELF

가제 : 나다운 나에게서 찾는 성공 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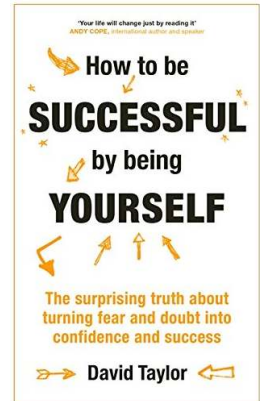
저자 : David Taylor

출판사: Teach Yourself

발행일: 2016년 12월 27일

분량 : 128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두려움과 의심을 자신감과 성공으로 바꾸는 놀라운 방법, ‘나다운 나’가 되어 목표를 이루는 전략

흔히 우스개 소리로 하는 말 중에 “여긴 어디? 나는 누구?”라는 말이 있다. 종착역이 없는 롤러코스터에 올라 탄 것처럼,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상황이 연속될 때 그런 말이 절로 나온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이루고 싶은 목표도 많은데 인생은 모래알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혼자 술술 빠져나가는 기분만 들 때, 내가 내 인생의 통제력을 잃고 끌려가는 것만 같을 때면 인생의 의미를 곱씹게 되고, 깊은 자책감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살아온 환경이나 교육 수준, 희망, 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든, 각자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다 갖추어져 있다. 단지 알아채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할 뿐이다. 저자는 머릿속 소프트웨어의 설정을 새롭게 바꾸고 우리를 가로막는 두려움과 의심, 걱정을 극복하여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불안해하는 마음속 목소리는 끄고 후회 없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원하는 목표를 향해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된다. 그 핵심에는 뭔가를 ‘해야 하는’ 압박에서 벗어나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원칙이 있다.

이 책이 이야기하는 성공은 각자가 생각하는 꿈, 운명, 궁극적인 목표가 모두 포함된다. 명칭이 무엇이든 중요한 건 남이 정해준 것이 아닌, 스스로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여야 한다. 즉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은지부터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싫은 것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위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슬프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 대신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스스로에게 훨씬 도움이 된다. 또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잠시 접어둘 필요가 있다. 일단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나에 초점을 맞추고, 속에서 올라오는 의구심이 질게 깔린 ‘어떻게 그걸 한단 말인가’라는 부정적인 목소리를 꺼야 한다. 일단 목표부터 정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면서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 된다. 억지스러운 노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을 끌어내려는 발버둥 대신 이미 가지고 태어난 자신만의 재능과 능력을 십분 발휘하는 방법을 저자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이 책에서 소개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지금까지 해온 것보

다 더 많이 노력해야 하고, 더 우수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각자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이 모든 생각에 반기를 들고, ‘최대한 원래 자신의 모습대로’ 도전하라고 이야기한다. 현재 우리가 시달리는 불안이나 걱정, 두려움은 모두 삶의 어느 시점에 ‘만들어진’ 것일 뿐, 원래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스스로 마음 속에 그런 요소가 뿌리를 내리도록 내버려둔 것이다. 올바른 방법과 도구를 손에 쥘다면, 언제든 이 쓸모 없고 좋을 게 하나 없는 이런 뿌리를 싹둑 잘라버릴 수 있다. 우연한 기회가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원하는 목표에 이르는 방법, 원할 때는 어디에서든 편안하게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실질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목차>

- 진실 1. 모두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다
- 진실 2.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해 태어났다
- 진실 3. 사랑은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 진실 4. 현실은 스스로 만들 수 있다
- 진실 5. 자아의 목소리를 직접 멈추게 할 수 있다
- 진실 6. 지금 하는 일을 하는 이유
- 진실 7. 전쟁과 평화?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 진실 8. 더 깊은 곳으로 가볼 수도 있다
- 진실 9. 자신이 책임질 일이다.

<저자 소개>

데이빗 테일러(David Taylor)는 리더십 컨설팅 업체 ‘Naked Leader’를 설립했다. 같은 제목의 저서 『Naked Leader』와 후속 도서 세 편은 모두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얼스터 비즈니스 스쿨에서 초빙교수로 전 세계 다양한 리더를 만나고 있다.

제목 : FUSE

가제 : 미래를 움직이는 의사결정의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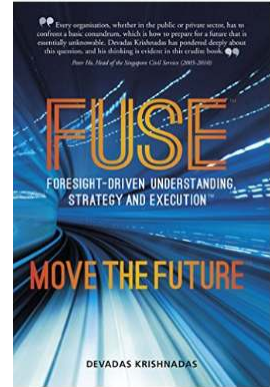
저자 : Devadas Krishnadas

출판사: Marshall Cavendish International (Asia) Pte Ltd

발행일: 2015년 10월 31일

분량 : 300 페이지

장르 : 경영



예견 능력, 주어진 정보에 대한 이해력, 적절한 전략과 실행을 토대로 한 기업의 성공적인 미래

현대사회와 같은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계에서 기업은 그저 살아남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장기적인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는 유리한 자리에 올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시에 전략적인 선택을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를 움직이다’라는 뜻의 업체 Future Moving Group의 CEO인 저자는 바로 그 의사결정의 구체적인 방식을 개발하고, 네 가지 핵심 원리인 예견(Foresight)과 이해력(Understanding), 전략(Strategy), 실행(Execution)의 앞 글자를 딴 FUSE라 이름 지었다. 하루하루 회사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만도 벅찬 상황일수록 더 빛을 발하는 예견의 역할, 회사 안팎에서 매일 쏟아져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숙아내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이해력, 회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아 추진 절차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는 전략, 그리고 유연성과 민첩한 대응 능력을 잃지 않아야 하는 실행의 중요성을 이 책에서 상세히 소개한다.

저자가 개발한 FUSE는 네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그 첫 번째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원칙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은 분명 사회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만 기술 자체를 숭배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제아무리 훌륭한 기술도 인간이 보유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능력을 모델로 삼아 만든 일종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가진 지능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특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능과 함께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 원칙은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관한 생각은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반응을 결정짓는다. 즉 생각이 향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 데이터는 중요하지만 생각만큼 극히 중요하지는 않다는 원칙이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참고할 만한 지식과 정보는 셀 수 없이 많은 양이 존재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과 같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한 지식’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 분명히 확실하다고 추정한 일도 결국에는 전혀 다른 결과로 끝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만 보아도 간단히 이 불확실성의 무게를 느낄 수 있다. 데이터는 중요하지만 무엇도 고정불변하는 건 없다는 사실, 지금 확고한 사실로 여겨지는 것도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의 유연성이 더욱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데이터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요긴한 정보, 등성등성한 생각의 틈새를 메워줄 수 있는 정보를 찾고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원칙은 행동이 결과를 만든다는 것이다. 미래를 예견한다는 것은, 곧 현재의 행동을 통해 다가올 결과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훌륭한 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FUSE의 마지막 구성요소, ‘실행’ 단계까지 제대로 이루어져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저자는 이 네 가지 원칙을 발판 삼아 고안한 ‘FUSE’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적인 성공가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한다. 공공기관, 민간 사업체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방식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설명한 지침서다.

<목차>

1부. 머리말

1. 두 회사의 이야기: 네플릭스 vs. 블록버스터
2. 전략적인 계획 수립: 운영방식에 관한 조사와 시나리오 만들기
3. 살라미스 전투: FUSE의 실행

2부. 예견

4. 예견의 의미
5. 핵심 질문이 놓여야 할 곳
6. 관습적인 시각을 지도화하자 (~10장)

3부. 이해력

11. 이해력의 의미
12. 편견과 직면하라
13. 편견을 줄여라 (~ 15장)

4부. 전략

16. 전략의 의미
17. 핵심은 리더십 (~ 19장)

5부. 실행

20. 실행의 의미
21. 부적절한 실행 (~ 23장)

6부. 결론

<저자 소개>

데바다스 크리쉬나다스(Devadas Krishnadas)는 싱가포르 회계, 사회정책 분야에서 일하다가 기업의 장기적 계획과 전략적 사고를 연구하고 알려주는 ‘퓨처 무브 그룹(Future-Moves Group)’을 설립자하고 CEO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Sensing Singapore』 등이 있다.

제목: THERE ARE NO OVERACHIEVERS

가제: 성공에 상한선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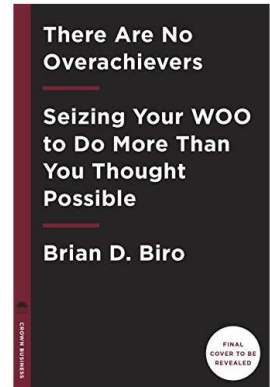
저자: Brian Biro

출판사: Crown Business

발행일: 2017년 3월 14일

분량: 192 페이지

장르: 자기계발



스치고 지나가기 쉬운 귀중한 기회를 알아보고 붙잡아 더 큰 성공과 행복을 이룩하는 방법

오랜 세월 친구로 지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런 돈독한 관계가 될 것을 예견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마찬가지로, 오늘 만난 사람이 앞으로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또 자녀나 배우자, 연인, 동료, 친구, 회사 직원에게 던진 말이 그들의 삶과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예측할 수 없다. 옆에 있던 누군가가 자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고, 이것이 인생의 궤도를 완전히 수정하는 계기가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저자는 이 마법 같은 순간을 ‘기회의 창’이라고 칭한다. 제대로 알아채고 붙들기만 한다면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심지어 뿌리부터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소중한 순간이 바로 저자가 이야기하는 ‘기회의 창’이다. 이 기회가 중요한 이유는, 한 번 놓치면 다시 잡을 수 없는 순간이 미래를 뒤흔들 가능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루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 일상 속에서 기회의 창이 다가왔을 때, 그것이 기회임을 인지하고 붙들 수 있어야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삶에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기회를 알아보고, 꼭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무수한 가능성으로 밝게 빛나는 기회의 창을 못 본 채 살아간다. 이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학습된 결과로, 갖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방어 습관이 두려움과 의심을 키우고 익숙하지 않거나 잘 모르는 것을 향해 손을 뻗지 않는 것이 생활화된 결과이다. 새로운 것을 시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보다는 잘못될 것을 먼저 걱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건강, 재정적인 상황, 자녀, 개인의 안전부터 넓게는 국가의 안보는 물론 늘 가던 길에도 모퉁이를 돌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을까 늘 전전긍긍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태도에 익숙해져 버렸다. 왜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늘 생각하며 불안하게 살아갈까? 세상을 지금과 전혀 다른 틀로 바라볼 수 있다면, 하루가 위험의 연속이 아닌 또 한 번 주어진 소중한 기회라고 여기면서 열정적으로 살 수 있다면, 굳이 먼 곳에서 행복을 찾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저자는 35년 넘게 실제로 실천하면서 체험한 변화를 바탕으로 아주 간단하고 재미 있는 원리를 깨우치면 이 무한한 기회가 주는 벅찬 행복을 온 마음으로 느끼며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짝막하게 이어지는 각 장에서 저자는 다른 사람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허락이나 승인을 받으려는 불안감을 떨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준다. 국가대표 수영코치이자 기업체 부사장으로 일한 독특한 경력을 쌓으며 직접 보고 들은 일화와 저자 개인이 겪은 일을 사례로 전하며, 기회의 창을 붙잡고, 스스로 기회의 창을 만들어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소개한다.

<목차>

머리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 바로 오늘!

1부. 미래를 뒤흔들다

- 1장. 미래를 뒤흔들어보자
- 2장. 초점은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다
- 3장. 미래는 결코 과거와 같지 않다

2부. 에너지,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

- 4장. 에너지의 새로운 형태 - 3에서 10으로 끌어올리기
- 5장. 이대로 놓칠 것인가, 발판으로 삼을 것인가 (~7장)

3부. 사람, 팀, 관계를 만들어라

- 8장. 긍정의 피그말리온
- 9장.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훨씬 잘 보인다
- 10장. 효과적인 네트워크 (~14장)

4부. 놀라운 결과

- 15장. 압박하지 말고 가볍게
- 16장. 우리 vs. 그들
- 17장. 일일이 허락 안 받아도 된다
- 18장. 기회의 창이 가져온 놀라운 결과

<저자 소개>

브라이언 바이로(Brian Biro)는 「INC. Magazine」 매거진이 선정한 최고의 강연가 40인에 4회 연속 1위로 선정됐다. 스탠포드 대학교와 UCLA에서 공부하고 대형 운송업체 부사장으로 일했다. <Good Morning America>를 비롯해 CNN, FOX의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한 경력이 있고, 최근에는 개교 75주년을 맞이한 UCLA 경영대학원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졸업생 100인에 포함됐다.

제목 : WE SHOULD TALK

가제 : 대화 좀 합시다

저자 : Celeste Headlee

출판사: HarperWave

발행일: 2017년 가을

분량 : 208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말은 덜 하고, 귀는 더 많이 기울이며 유익한 대화로 이끌어가는 열 가지 원칙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거나 통화를 하는 대신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일이 훨씬 많아진 세상이지만, 대화는 여전히 우리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 잘 풀린 대화, 혹은 의도치 않게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 대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한다. 꼭 입사하고 싶었던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서 했던 이야기가 낙방의 이유가 되었다면? 결혼생활이나 친구관계가 대화가 안 통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면?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부모나 형제와 나눈 몇 마디 말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는 경우는? 우리는 잘못된 대화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것을 잃고, 기회를 놓치고 만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대화가 생존 전략이 되기도 한다. 저자는 20년 이상 라디오 진행자와 기자로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하면서 체득한 대화법을 2015년 TED 강연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다.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라”든가 “잘 듣고 있다는 의미에서 고개를 끄덕여라” 같은 흔해빠진 조언이 전혀 없는 저자의 특별한 대화 기술은 TED 홈페이지에 강연 영상이 업로드되고 단 5개월 만에 조회수 550만 회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개개인이 이루고픈 꿈에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는 필수도구이자 생존 전략이 되기도 하는 대화의 기술이 책으로 완성됐다.



<TED 영상: https://www.ted.com/talks/celeste_headlee_10_ways_to_have_a_better_conversation?language=en>

말로 하는 대화는 인간의 본질이자 특징이다. 대화는 단순히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며,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 그 기술을 연마하는 과정이다. 아이가 세상에 처음 태어나면 주변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눈으로 보고 귀에 들려오는 음성의 톤

을 들은 뒤 보고 들은 것을 따라 하면서 말을 배우고, 말과 함께 사회적인 기술을 습득한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발전하면서 대화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이 특별한 기술, 즉 얼굴과 음성에 담긴 미묘한 의미와 감정을 포착하는 능력을 서서히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위험한 가능성을 의미한다.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졌지만 대화를 모방한 기술일 뿐 정작 진짜 대화는 그로 인해 대폭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원만한 대화는 회사에도 훨씬 더 큰 수익을 안겨주고, 문자 메시지로의 절대 불가능한 감정의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 저자는 수많은 대화와 인터뷰, 연구를 통해 절감한 대화의 중요성과 잘못된 대화로 중요한 기회와 관계를 망치지 않는 핵심 기술을 편안하고 재치 있게 설명한다.

<목차>

머리말. 대화가 생사를 가를 수도 있다

1장.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당신

2장. 대화는 생존 기술이다

3장. 입 단속! (적당히)

4장. 대화 중에 짖은 금물, 한 가지만 하자

5장. 고집 좀 그만 부려라

6장. 사람이 다 같을 수는 없다.

7장. 말 많은 사람 환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8장. 같은 말 반복하지 말자

9장. 잡초 제거 - 불필요한 이야기는 빼라

10장.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라

11장. 들어라!

12장.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다

13장. 누가? 뭘? 질문의 요령

14장. 무조건 말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저자 소개>

셀레스트 헤들리(Celeste Headlee)는 오페라 가수로 음악을 전공했다. 1999년부터는 공영라디오 방송에서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NPR 프로그램 "Tell Me More", "Weekend Edition", "Talk of the Nation" 등을 진행했고, 조지아 방송국 등 다른 방송사에서도 라디오 진행자로 활동했다.

제목 : THE END OF ACCOUNTING AND

THE PATH FORWARD FOR INVESTORS AND MANAGERS

가제 : 재무 보고서의 종말, 투자자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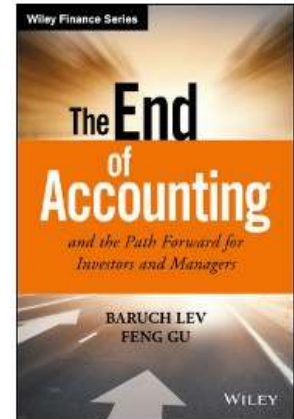
저자 : Baruch Lev, Feng Gu

출판사: Wiley

발행일: 2016년 6월 27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경제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 및 미래의 가능성과 거의 무관해진 재무 보고서의 실체와 더 나은 대안

대차대조표, 현금 흐름표, 그 밖에 분기나 연 단위로 기업이 발행하는 각종 재무 보고서는 투자자와 금융기관이 해당 기업에 돈을 투자할 것인지, 융자 승인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바탕이 된다. 기업의 인수 합병이나 구조조정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예측할 때도 재무 보고서는 기업의 수익성과 지불 능력을 판단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기업의 재무 정보가 이처럼 광범위하고 중요하게 활용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정보는 엄격히 관리되고 보고서에 담기는 정보는 그 범위나 복잡성 면에서 모두 확대되는 추세다.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무 정보는 시장과 사업을 모두 좌지우지하는 핵심 정보로 여겨진다. 그러나 두 저자는 이제 재무 보고서는 자본 시장에서 내려지는 의사결정에 효용성을 잃었다고 단언하면서 보다 현실적이고 유용한 대안을 이 책에서 제시한다.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된 포괄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무 자료가 오히려 투자자의 판단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 배경과 이유를 밝히고 실제 사례를 통해 시장과의 연관성을 잃게 된 과정을 설명한다. 그리고 ‘가치 창출 보고서’라고 명명한 새로운 자료를 대안으로 소개하고 기업의 전략과 실행에 중점을 둔 이 보고서로 기업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책의 1부에서는 지난 50년간 발표된 기업 재무보고서의 활용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와 함께 재무 정보가 투자자의 신중한 결정을 저해하게 된 과정, 특히 지난 20년간 한층 더 가속화된 이례적인 변화를 되짚어본다. 회계 자료와 기업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진짜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재무 보고서에는 더 이상 제대로 담길 수 없는 구조가 된 까닭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저자는 현 상황에서 투자자가 재무보고서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단 5 퍼센트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는다. 책 2부에서는 회계 자료를 무용하게 만든 세 가지 중요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자료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이어 3부에서는 투자자가 안전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한 후 회계 자료가 아닌 기업의 전략(사업 모델)과 실행 방식, 계획에 초점을 맞춘 대안을 제시한다. 신규 고객의 숫자, 통신사나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경우 상품 가입 해지율, 자동차 보험사의 경우 사고 빈도와 정확성, 약관 갱신 비율, 제약회사나 생명공학 회사의 경우 임상시험 결과 등 기업이 속한 산업 유형에 따라 어떤 자료를 어떻게 찾아서 확인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까다롭지만 무익하기만 한 재무 보고서 대신 판단의 정확성을 한층 더 높여주는 새로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요한 투자, 융자 결정을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정보서다.

<목차>

요약

머리말

1장. 기업 보고서의 과거와 현재: 한 세기 동안 이루어진 “발전”

2장. 수익이 정말 핵심일까

1부. 실제

3장. 재무 정보와 주식 가격, 점점 커져만 가는 격차

4장. 첫인상보다 더 나쁜 상황

5장. 투자자와 회계 자료, 누구의 잘못일까?

6장. 그래도 확신할 수 없는 이유

7장. 자료의 의미

2부. 타당성이 사라진 이유

8장. 무형 자산의 증가, 회계의 추락

9장. 회계: 사실인가 소설인가

10장. 누락의 죄, 그리고 이사회

3부. 이제 해야 할 일은?

(11~15장)

4부. 현실적인 문제

(16~18장)

정리하면서: 옹호집단의 필요성

<저자 소개>

바루흐 레브(Baruch Lev)는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원의 회계 교수로 『Winning Investors Over』 등 다섯 권의 저서와 연구논문 100여 편을 발표했다.

펑 구(Feng Gu)는 버팔로 대학교 교수이자 회계·법률학과장을 맡고 있다. 여러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했다.